



김제 금산면 노인일자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6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심뇌혈관질환 및 뇌졸중 예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대처법을 안내해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승곤 금산면장은 “노인일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노령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나서

남원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에 음성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 외에도 △문자 △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문자 메시지 신고는 음성통화가 불가능하거나 전화 불통인 지역에서 유용하고, 사진이나 영상 첨부가 가능해 전화 신고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이용이 가능, 화면에서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신고자의 GPS 위치정보가 110상황실로 전송돼 도움받을 수 있다.

특히 영상통화를 활용, 화재·심정지 등 응급상황 상황에 따른 대처 및 심폐소생술 안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해빙기 기온상승에 의한 여리 안전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해빙기 시기 땅속 수분이 얼었다를 반복하여 지반이 약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해빙기 안전사고에는 빙판 깨짐으로 인한 수난사고, 붕괴·무너짐 사고·낙석 사고 등이 있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얼음 위 올라가지 않기 △얼음 위 놀이 및 낚시 금지 △낙석 발생 가능 지역이나 낙석주의 표지판이 있는 곳은 우회 △등산 시 미끄럼 사고 주의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활력 성공사례 ‘눈길’

고창군 흥덕하모니센터, 각종 농촌활력사업 우수사례 꼽히며 전국서 벤치마킹 이어져

고창군 흥덕면의 농촌복합문화공간 ‘흥덕하모니센터’가 주민주도 농촌활력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흥덕하모니센터가 개관 4년여를 맞으면서 전국에서 운영 노하우를 배우려는 기관·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전남지역은 물론, 경북과 경남, 충북, 최근에는 경기도 여주시에서까지 와서 주요프로그램을 배우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흥덕하모니센터는 농립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산업 선도지구로 선정해 2020년 2월 개관했다. 특히 주민협의체 ‘하모니협동조합(대표 유영만)’을 꾸려 프로그램 운영과 수의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헬스장은 여도 국가대표 출신이 무료 트레이닝을 담당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요가, 라인댄스, 에어로빅은 물론, 바이올린, 색소폰, 로봇과학공예 등 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또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운영하는 시니어카페도 있다. 어르신 바리스타는 바쁜 와중에도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상냥한 미소를 건네며 주문한 메뉴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다. 김애란, 배주연씨는 “정성을 담아 만드는 음료들과 함께 하모니센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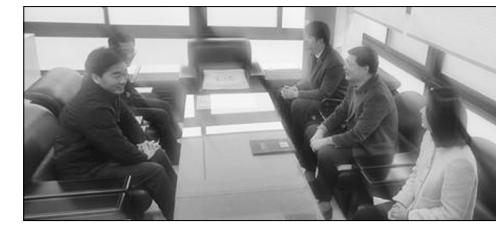


서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미소를 짓었다.

하모니센터는 과거 ‘제8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다. 이후 전라북도를 대표해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대회에서 농립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유영만 흥덕하모니센터 이사장은 “더 좋은 고장을 만들 수 있는 하모니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존중과 회합으로 하나 되는 활력 공급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경찰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간담회

김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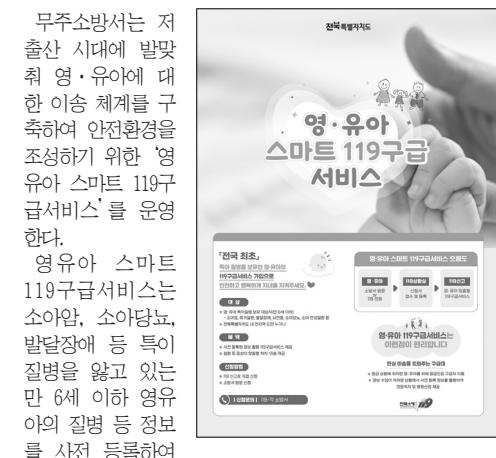
이번 간담회는 총 10명(경찰 5, 선관위 5)이 참석했으며 선거사범 발생시 기관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여건 상 빈번히 발생되는 선거벽보·플래카드 훼손행위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고질적인 ‘5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제경찰서와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양 기관이 유기적 공조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적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소방서,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홍보



무주소방서는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영·유아에 대한 이송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는 소아암, 소아당뇨, 발달장애 등 특이 질병을 앓고 있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질병 등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응급출동 시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여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법적 대리인)가 119로 직접 신청 또는 소방서 및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금지면 지사협, 진주회관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금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면장 안민엽, 민간위원장 김영곤)는 관내 진주회관(대표 서미영)을 찾아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 가게는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으로 함께 하는 기부 형식이며, 복지허브화 착한 가게의 1인 1계좌를 통해 후원받은 기부금은 △어울림 사랑애찬(餞) △순발튼튼! 건강튼튼! 프로그램 △동그라미 안전 점검 등 지역복지 특화사업 운영에 사용된다.

서미영 대표는 “부모님께 사업체를 물려받으면서 기부하는 마음까지 함께 받았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안민엽 금지면장은 “지역 복지를 위해 기부에 함께 해주신 서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며, “복지허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복지활성화 및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신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027-9417
호자지사
010-88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신지사 8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천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순창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순창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국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워어블리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폭행 피해 구급대원 전문심리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순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